



신규간호사의 암 병동 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혜란¹ · 권인수²

¹경상대학교병원, 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ncology Adaptation Experiences of New Nurses

Kim, Hye Ran¹ · Kwon In Soo²

¹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inju; ²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adaptation experiences among newly employed nurses in oncology ward. **Methods:** The present study adopted a phenomenological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9 nurses employed for less than one year.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in-depth interviews. The question of this study was, "What are your experiences as a newly employed nurse in oncology?" **Results:** 150 significant statements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and these were clustered into 5 main categories: a 'Difficulty in performing the work of a cancer ward,' 'problem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riving to be a good nurse,' 'satisfaction and rewarding nursing,' and 'adapted oneself to be a nurse.' **Conclusion:** Newly employed nurses in oncology ward experienced and perceived feelings of difficulty in performing the work of a cancer ward, problem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riving to be a good nurse, satisfaction and rewarding nursing, and adapting oneself to be a nurs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new nurses, and to provide strategies that could help new nurses effectively adapt and find the meaning in their adaptation to work in oncology wards.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development of a program focusing on training to improve practic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kills.

Key words: Nurses, Qualitative Research, Adaptation, Experie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의료 환경은 의료소비자의 수준 향상과 다양화, 의료시장의 개방,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병원조직은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질적인 인력 관리 및 조직의 목표 달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¹⁾ 병원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부서의 적절한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는 병원 운

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²⁾ 이에 간호부서는 신규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위하여 프리셉터 제도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학에서도 간호학성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실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제 중심 학습방법이나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³⁾

신규간호사는 정규 간호교육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실무에 임하게 될 때 예상하지 못한 현실에 충격을 받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간호업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실수로 연결되어 업무와 관련된 심적 중압감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서도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미숙함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는 등 자존감도 매우 저하된다.⁴⁾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들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을 때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⁵⁾

국내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3년 16.9%이었고,⁶⁾ 특히 2012년에는 입사한 신규간호사 13,881명 중 이직자가 4,330명(31.2%)으로 전체 간호사 이직률의 두 배 가까이 된다.⁶⁾ 간호사의 이직은 새로운 인력 선발과 관련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고, 직원의 사기 및 부서의 관

주요어: 간호사, 질적 연구, 적응, 경험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won, Insoo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5 Jinju-daero,
816 beon-gil (Juyaak - dong), Jinju 660-987, Korea
Tel: +82-55-772-8236 Fax: +82-55-772-8209 E-mail: iskwon@gnu.ac.kr

투 고 일: 2014년 4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25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리 능력을 저하시키며,⁷⁾ 간호사들은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 소진이 되며, 이는 환자의 사망률 증가,⁸⁾ 병원감염률의 증가⁹⁾ 등 간호의 질적 보장과 전문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간호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²⁾ 직무스트레스^{11,12)}와 직무만족,^{2,11)} 직무몰입,¹³⁾ 대처,¹⁴⁾ 조직몰입,^{2,15)} 경력몰입,¹⁵⁾ 소진,¹⁶⁾ 자기효능감,¹¹⁾ 효과적인 멘토링¹⁷⁾ 등이 있다. 또한, 희망부서에 배치되지 못하거나,¹⁸⁾ 예비교육 만족도가 낮을 때¹⁹⁾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스트레스, 소진과 만족과 같은 직무에 대한 반응요인나 대처, 자기효능감, 멘토링과 같은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요인들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무반응이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암 병동은 일반병동과는 달리 입원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므로 이들의 간호 요구도와 의존도는 일반 환자 보다 높기 때문에,²⁰⁾ 암 병동 간호사는 일반 병동 간호사에 비해 감정노동과 소진이 높으며, 이것은 경력이 낮을수록 더 높다.²¹⁾

Lee와 Tac²¹⁾은 중앙병동 간호사의 소진체험에 관한 연구에서 중앙 환자들이 모든 일에 예민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끝없이 반복되는 요구로 인하여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기진맥진하게 되고, 현 부서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타 부서로 이동을 요청하게 되나, 병원이나 간호부의 사정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면 마침내 간호직을 그만두는 결정을 하게 되거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규간호사는 졸업 후 학생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하고 자신이 행하는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며, 대인관계나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²²⁾ 신규간호사의 암 병동 적응에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높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암 병동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적응하면서 겪은 경험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규간호사의 적응경험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신규 간호사의 임상 경험,²³⁾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의 적응 경험,²⁴⁾ 신규간호사의 삶의 경험,⁴⁾ 편입과정을 거쳐 입사한 신규간호사의 적응경험²⁵⁾ 등이 있었으며, 암 환자를 간호하는 신규간호사의 적응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가 처음으로 암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적응에 관계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과정에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들의 경험세계를 주관적이고 총체적으로 통찰, 발견, 해석함으로써 신규간호사들의 보다 긍정적인 암 병동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 병동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들의 적응 경험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을 충실하게 파악하여 서술하고 내용을 분석하고자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경남지역 J시에 소재하는 G대학병원의 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자에 대한 권리와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임상경력 1년 이하인 간호사로, 대상자 수는 면담에서 같은 유형과 범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는, 즉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표집한 9명이었다.

3. 연구자 훈련과정

연구자는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에서 3학점의 질적 연구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하였고, 동료그룹과 매주 현상학을 포함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관련 참고문헌들을 숙독하고 실제 실습을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료 수집이 끝난 후 동료그룹과 토의 시간을 가지고 매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며 다음 면담에서 해야 할 질문과 주의할 부분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진행과 결과에 대한 분석은 질적 연구 강좌담당 교수의 자문을 받아수행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 장소는 조용하고 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휴게 공간 등 대상자가 원하는 곳으로 선정하였고, 면담 시간은 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가 끝난 시간이나 업무 시작 전 원하는 시간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 형태를 사용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면담 시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연구문제로 접근하여 참여자들이 자

신의 느낌이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신규간호사가 암 병동에 적응하면서 겪는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메모를 하여 의미가 모호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밟았다. 면담은 각 대상자 별로 30분씩 1회와 40분씩 2회로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모두 녹음하고, 대화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반복하여 읽으며 자료 내용을 확인하며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진술 중 공통적인 의미진술이 발견되고 의미를 설명하는 기술들이 충분히 완성되어 더 이상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시점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연구 수행에 따른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자료 수집에 앞서 G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GIRB-A14Y-0011). 자료 수집 시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도 중 참여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 시 대화 내용에 대해 녹음을 실시할 것과, 녹음된 자료는 연구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처분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녹음된 모든 자료는 암호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심층 면담 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술하려는 Colaizzi²⁶⁾가 제시한 6단계 분석 방법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1단계는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참여자의 기술(protocols)을 읽는 단계로서 경험의 의미를 전체로서 이해하기 위하여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다.

2단계는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하는 단계로서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조사된 현상을 진술문으로 끌어냈다.

3단계는 의미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개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면서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4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내는 단계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주의

깊게 살펴 의미를 구성하였다.

5단계는 도출된 의미를 구성의미, 주제모음, 범주(categories)로 조직하는 단계로서 각 진술로부터 주요 의미를 도출하고 비교분석과정을 거치면서 범주에 이름을 부여하였다. 상기의 주제모음은 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 단계에서 범주의 내용이 처음에 진술한 내용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주와 자료간의 확인과정을 거쳤다.

6단계는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범주는 신규간호사의 암병동 적응경험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7.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Guba와 Lincoln²⁷⁾이 제시한 네 가지 항목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및 중립성 등에 근거하여 확인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친근한 관계 형성이 된 후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면담과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의 면담 내용이 연구자의 기술내용과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적용성을 위해 각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심층 면담을 통하여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아닌 암 병동 신규간호사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 주어 적용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과정 동안 간호학 교수 1인으로부터 연구 전반에 걸친 감사의 과정을 통해 일관성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 암 병동 신규간호사에 대한 선 이해나 가정을 기록하여 면담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8.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참여자는 3차 기관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1, 2차 기관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 것이 연구 결과의 적용에 제한점이다.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 신규간호사의 암병동 적응 경험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총 67개의 의미가 구성 되었으며 이는 18개의 주제모음과 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Table 1).

1. 범주 1. 어렵고 힘든 암 병동의 업무수행

‘업무량의 과다로 힘들’, ‘막막하고 힘에 벅거운 특수업무 감당’, ‘숨

Table 1. Newly nurses' Adaptation Experience of the Cancer Ward

Categories	Theme clusters	Formulating meaning
Difficulty in performing the work of a cancer ward	I'm hardly a plethora of workload	It is difficult to wait on each patient hand and foot A lot of needs got the staff annoyed at the moment There are many workloads Sometimes I'm tired of disappointing my appearance, and I'm sorry to patients and caregivers I myself wish to DNR ashamed Sometimes it seems to be doctors are recommending a DNR decision The biggest stress is to see patients dying
	I'm hardly unruly special work	Work has been focused on cancer and blood transfusion It is complicated to calculate the dose of anti - cancer drug and make an order It is amazing to enter the cleanroom, but I am afraid sometimes even difficult I'm afraid the patient's illness is bigger, Because of my germs Special inspection is often confusing It can be hard to explain the orientation and drug treatment
	This work burden and make me to feel sense of shame	Basic tasks like intravenous injection do not even understand Basic task itself is difficult and scary Intensive care is very strenuous It's hard to take over the duty Making a mistake over and over, the staff is getting intimidated When the condition of the assigned patient gets worse, the staff feels shamed
	Difficultie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school and clinical	A lot of different schools and clinicians For busy work, the appropriate use of theory and practice is not affordable I learned basic nursing skills, but it is difficult to do in practice
	Shift work is burdensome	It seems difficult to shift itself Nursing itself seems to be a lot of stamina consumption
Problem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 feel difficulty in relationships with fellow nurses	Can not dare to talk to teachers In the clinic, the most difficult thing has come to the hospital upset relations The comparison with fellow nurses made the staff depressed
	I feel difficulty in relationships with another jobs	Notifying one's doctor, the staff becomes careful and one's self-confidence disappears Doctors' ignoring tone and expression hurts one's mind I incur the unclear interns and nurses work It's hard to ask the elder nursing assistants for work I work with other departments is difficult to handle
Strive to be a good nurse	It is difficult to build relationships with patients, caregivers	It seems for me to be tested Patients have treated the newly staff unlike senior nurses Knowing me as the newly nurse, they seem not to trust her I don't know what to do for the patients
	I feel the need for education	It will be much better if the students are trained more by the clinical nurses I want to be taught by several teacher with each other style I want senior nurses to point out the necessary educational content
	The need for educational resources	I wish to be given small training materials such as handy books and summary books The simple manual for CPR is needed
	I feel the need for educational resources	Owing to the experience, it will get less difficult The work will be better further As time goes by, the staff will be a good nurse Believe that hard work makes myself happy
	I shall endeavor	Practice pronunciation and my ability to be persuasive Study hard and strive to be a better nurse
Satisfaction and rewarding nursing	I feel satisfaction for a job	The nurse is the joy and excitement, and looked forward to The work of nursing is able for me to be done Nursing is quite rewarding than I thought
	I feel worthwhile to receive recognition	When patients and caregivers have come to appreciate the nursing staffs Feel worthwhile when they are back to the ward to say thank you

Table 1. Newly nurses' Adaptation Experience of the Cancer Ward (Continued)

Categories	Theme clusters	Formulating meaning
Adapted oneself to be a nurse	The support of fellow nurses invigorates me	The Workshop together in a new place, not in the hospital was very good It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to give a present to myself It is really helpful to each other as meeting friends frequently and sharing information
	I feel familiar to ward	There are more positive patients than the depressed They are quite cheerful in spite of their illness Spend time with patients often make more intimate ward
	I reduced the difficulty of human relationships	Ward seems to make me feel happy Senior nurses give much understanding to newly hired ones I think the teacher in preceptor gives better understand The ward dinners once a month seems to be a good Having a meeting with senior nurses, it seems like being assimilated as one of ward members
	I am proud to work with the ability to improve	Surely, It seems that I become knowledgeable compared to the first time and commit fewer mistakes As work process speed got faster, I feel sense of accomplishment after finishing work earlier Colleagues and Seniors are very supportive and we are getting along well I work with other departments is difficult to handle Now it feels like things are getting somewhat stable

막히는 업무부담감과 자괴감, '학교와 임상'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교대근무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5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모음 별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주제모음 1. 업무량의 과다로 힘들

신규간호사들은 암 환자들의 통증 조절 및 잦은 불평과 요구에 순간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자신에 대해 실망하면서 응대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암 병동은 CPR보다 DNR결정이 많아 바쁜 업무로 인하여 DNR결정을 바라는 자신을 부끄러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진이 DNR결정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였다.

일 때문에 힘들었을 때는 제 몸은 하나인데 여기저기서 complain이 한꺼번에 빗발치면서 서로 자기를 먼저 봐달라고 불렀을 때, 정말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바쁘고 능력이 부족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순간 짜증이 확 났었어요. 다행히도 짜증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실망스럽고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에게 미안했어요. 병원의 이미지에 간호사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호사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한 것 같고, 간호 인력을 더 늘리거나 전산작업을 줄여서 좀 더 환자에게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9)

그리고 통증치로도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이 느리고 내가 할 일들은 산더미 같은데 라운딩 돌고 처치 돌고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환자들은 앓을 틈도 안주시며 pain control 해달라고 합니다. (참여자 8)

암 병동은 DNR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느 순간 업무 상 DNR을 바라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때는 의료진이 DNR결정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여자 7)

그리고 암 병동이라 임종 환자들을 많이 보는 게 제일 큰 스트레스 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자체가 힘들게 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괜찮았던 환자분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 점차 condition이 악화되고 결국엔 expire를 합니다. 살아서 걸어 나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업무를 다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망하시면... 말 그대로 멘탈붕괴가 옵니다. 모든 저의 업무는 마비가 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보호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도 잘 못해주는 거 같기도 하고... 진짜 이분이 expire한 건지 경험이 부족해 잘 몰랐습니다. 처음엔... (참여자 8)

2) 주제모음 2. 막막하고 힘에 버거운 특수업무 감당

주요업무 중 하나는 항암과 수혈이며, 또한 수혈업무에서 인턴선생님과 업무가 불명확하여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근무균일 업무, 다양한 특수검사와 같은 특수한 암 병동 업무에서 신규간호사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암 regimen 보는 것도 티켓을 짜는 것도 너무 생소하여 힘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저를 너무 당황하게 하고 힘들었습니다. D근무할 때 신환 와서 바로 항암을 start할 때는 정말 미처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용량은 정확히 맞는지 내가 짠 순서가 맞는지 당연히 올더 샘께 한번 더 점검을 마치죠. 그리고 확인하고 항암조제를 부탁한다 해도 주치의 샘

이 용량을 잘못해서 입력하면 항암 조제실에서 다시 전화가 오죠. 용량 잘못되었다고 다시 입력하라고 그러면 주치의 쌤도 바쁘니까 다시 입력하는 건 우리 몫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참 어려웠어요. 시간은 없어죽겠는데 용량을 여기서 어찌어찌 바꾸라 하는데 못 알아듣기 일 수였죠. (참여자 8)

암 병동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업무가 항암 및 수혈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수혈의 경우에는 인턴선생님의 업무와 간호사 쌤들의 업무가 불명확하여 조금씩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또... 특수한 검사가 많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방향과 약물을 설명하기도 너무 막막하고... (참여자 4)

맨 처음에 암 센터에 갔을 때 신기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준무균실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께 들어가기 전에 소독제로 소독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마스크를 써서 제 몸에 있는 균이 최대한 준무균실 안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맨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가도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두렵더라고요. 혹시 저 때문에 병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하고요. 다른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균들도 준무균실 안의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말을 너무 듣다보니... 사람 자체가 균 덩어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조심하면서 근무하고 있긴 한데... 잘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온 좋게 아무런 탈이 안 난 걸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참여자 3)

3) 주제모음 3. 숨막히는 업무부담감과 자괴감

신규간호사들은 종종 암 환자를 간호하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과중한 업무와 인계상황, 등 많은 상황과 업무들을 힘들어하고, 기본 업무와 정맥 주사도 어려워하며 심지어 맡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자괴감까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좋은 환자가 제게 있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일도 다 못하는데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참여자 5)

용어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인계시간만 되면 인계사항 및 history를 줄줄 읽기 바쁘고 인계장은 정신이 없고...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인계시간이 되어 오면 떨리고, 내가 뭘 소리를 하나 싶고, 특히 아침에 수선생님 앞에서 하는 인계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참여자 6)

제가 신규라... 또, 환자의 상태가 안좋아지면 제가 잘못해서 그런게 아닌가 올드 선생님이라면 살렸을까...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참여자 7)

신규초기 때는 싸인하는 거부터 노티하는 것까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두 번, 세 번 확인하게 되고 묻게 되서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불안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1)

다른 신규쌤들도 다들 정맥주사를 잘 못 놓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하면 환자, 보호자나 다른 쌤들께 눈치 보이고... 특히, 예민한 환자는 주사 놓으러 가는 게 좀 무섭고요. (참여자 3)

4) 주제모음 4. 학교와 임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신규간호사들은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오지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임상 현장의 차이를 많이 경험하고 낯선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기본 간호술을 배우긴 했지만 막상 간호사가 되어 해보니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병동에 들르시기는 하지만 임상을 떠난지 오래되다 보니 실제 임상과 관련해서 교육해 주시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해야 할 일도 시간에 바쁘고 쫓기다 보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요. (참여자 3)

5) 주제모음 5. 교대근무에 대한 부담감

신규간호사들은 교대근무 자체를 어려워하며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생활패턴이 다른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체력소모가 많은 직업이라고 표현하였다.

힘든 줄은 알았지만 3교대도 힘들고, 생각보다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잠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쉬고 잘 때 일하러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여자 3)

간호사 자체가 너무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체력소모도 많고... (참여자 6)

2. 범주2. 원만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동료 간호사들과 관계형성의 어려움’, ‘타 직종과 관계형성의 어려움’, ‘환자, 보호자와 관계형성의 어려움’이라는 3개의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모음 별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주제모음 1. 동료 간호사들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신규간호사들은 선배간호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무서워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생각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발령이 빠른 동기 신규 간호사와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도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처음에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게 쉽지 않은 건 내 성격 탓도 있겠지만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이 주는 압박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2)

먼저 온 선생님과 비교가 힘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2달의 차이에도 선생님들과 이미 많이 교류가 있었고 업무도 훨씬 잘 해서 당연히 저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처음에는 사회생활하면서 그러한 것을 감안을 안했던 건 아니지만 막상 직접 겪으니 조금 의기소침해져있어 힘들었습니다. (참여자 4)

2) 주제모음 2. 타 부서 직원과 관계형성의 어려움

신규간호사들은 보조 인력과의 나이 차이에도 어려움을 타나내었으며 타 부서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의사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보고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보고 기술의 부족도 있지만 신규간호사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 무시는 말투와 표정에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간호보조원 선생님이 저보다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뭔가를 부탁하려고 해도 미안하고 버릇이 없는 것도 같고 하여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친해지고 싶었는데 간호사 선생님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차츰 말을 걸고... 지금은 조금 친해졌는데 그래도 아직 어렵습니다. (참여자 5)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해 전화를 하면 제가 하면 잘 안되는데 올드 선생님이 전화하시면 한 번만에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 선생님 대하는 것도 어려워요. (참여자 6)

의사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무섭습니다. 뭔가 보고할 것이 있어 전화를 하면 짜증내면서 “빨리 말하세요. 그것도 몰라요?”라며 전화를 먼저 끊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제가 자기 환자를 맡으면...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봅니다.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올드 간호사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부면 부럽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참여자 5)

3) 주제모음 3. 환자, 보호자와 관계형성의 어려움

신규간호사들은 지식과 스킬 등 업무적인 면과 대인 관계술이

부족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에게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배간호사들에게 대하는 것과 다른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환자는 신규간호사인걸 너무 잘 알고 나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참여자 6)

처음에 보호자가 저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이 물어봤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몇 개 말을 못하니깐 그때부터 저를 찾지 않고 올드 간호사만 찾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 서..... 제가 담당간호사인데... 참 맘이 상했어요. (참여자 8)

3. 범주 3.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노력함

‘교육의 필요성을 느낌’, ‘교육자료의 필요성을 느낌’,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함’, ‘스스로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짐’이라는 4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모음 별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주제모음 1. 교육의 필요성을 느낌

신규간호사들은 적응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여러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며 호스피스 등 암 환자와 관련된 교육이나 CPR같은 응급상황대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으면 선생님들 마다 일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case를 겪어보며 이럴 땐 이런 게 좋고 저럴 땐 저런 게 좋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나중에 독립하여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호스피스, CPR같은 더 많은 중재에 대해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이 중요한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7)

2) 주제모음 2. 교육자료의 필요성을 느낌

신규간호사들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CPR 시 간호사의 행동요령이나 매뉴얼과 같은 실무에 필요한 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실전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CPR 상황 시 간호사의 행동요령이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CPR 상황을 보더라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여전히 CPR에 대해 두려움이 생깁니다. (참여자 1)

교육을 받으면서 자료가 책이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 읽

기도량이 너무 많고 그것을 요약한 요약북이나 핸드북같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교육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5)

3) 주제모음 3.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함

신규간호사들은 많은 일들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은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길 바라며 출근합니다. (참여자 2)

지금까지 일하면서 적응하기가 힘들긴 해도 앞으로 일하다 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참여자 3)

4) 주제모음 4. 스스로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짐

신규간호사들은 자꾸 해보고,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연습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발음도 고치고, 말발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연습하고 공부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 간호사님처럼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서로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이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4. 범주 4. 간호직에 대한 만족감과 보람을 느낌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낌’, ‘인정받음에 보람을 느낌’이라는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모음 별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주제모음 1.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낌

신규간호사들은 간호사가 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설레임이고, 기대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생각했던 것 보다는 할 만하고, 생각했던 것 보다 꽤 보람차고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여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설레임이고,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갖는 직장이었으니까요... 간호사의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직정) 것 보다는 할 만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꽤 보람차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 제가 해주는 일에게 빠하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간호사라 부러워합니다. 전문직이라고... (참여자 5)

2) 주제모음 2. 인정받음에 보람을 느낌

신규간호사들은 간호하면서 보호자에게, 선배에게 칭찬을 듣고, 업무가 늘어 감을 느끼며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지만 분명히 기분 좋고 뿌듯한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에게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은 전부 천사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윗 년차 선생님께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칭찬 들었을 때, 처음으로 일을 제 시간에 마쳐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칼 퇴근 했던 순간... (참여자 9)

5. 범주 5. 간호사로서 적응되어 감

‘동료 간호사의 지지가 힘이 됨’, ‘병동이 친근하게 느껴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줄어듦’,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뿌듯함’이라는 4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모음 별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주제모음 1. 동료 간호사의 지지가 힘이 됨

신규간호사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병원동기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고, 워크샵, 병동모임 등 사교적인 모임이 힘이 되며, 선배들의 격려와 정서적 지지가 버텨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많이 공부하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게 선물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 마치면 병원 동기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참여자 2)

워크샵이 좋았습니다. 프리셉터 선생님이라 ‘병원’이라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함께 해보고 병원얘기가 아닌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서로의 가정사도 이야기 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2) 주제모음 2. 병동이 친근하게 느껴짐

신규간호사들은 암 병동이 조용한 병동이며 암 환자들이 자주 보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고, 우울해 하는 사람 보다 웃는 사람이 많아 다른 환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고 환자들을 자주 보

니 더 친근한 병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들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못 다한 것을 다시 되돌아보며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병동인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발령을 받고 처음 들어선 암 병동의 느낌은 “참 조용하구나”입니다. 제가 학생간호사 때 실습할 때도 여기는 참 조용하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CPR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간호사는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너무 조용해서 참으로 조용한 병동이구나 하는 것이 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참여자 5)

암 환자는 다들 우울할 줄 알았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한 병... 내가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상생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주사를 잘 놔주면 기뻐했고, 인사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건네면 좋아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밝은 느낌이었습니다. 우울해 하는 사람 보다 웃는 사람이 많고, 항암치료 후 그들이 퇴원 할 때는 고맙다는 인사도 했고... 자주보니 더 친근한 병동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7)

위암 환자의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내가 돈을 번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쓰러니 죽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쓰면서 사세요.’ 못 다한 것이 생각나는 병동,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병동인 것 같습니다. (중략) 사망이 가까워진 환자들이 뭔가가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같이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물건이나 동물이 보이기도 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서 사후세계를 모르지만 영적으로 뭔가가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못 다한 일이나 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영적간호?? 뭐 이런 종류?... 제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 나도 못다한 것이 없나 생각하게 되고 일상에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7)

3) 주제모음 3.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줄어듦

신규간호사들은 적응되어가는 자신을 병동의 멤버의 한명으로 차츰 흡수되어 가는 것 같고, 한 식구로써 섞여 있게 되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선생님들이 신규라는 자체를 많이 이해해 줍니다... 다른 병동 선생님들과도 조금씩 얘기하고 궁금한 일에 대해 묻고 하다 보니 어느덧 나도 병동의 한 식구로써 섞여 있게 되었던 것 같

습니다. (참여자 8)

보통은 프리셉터 선생님의 근무를 따라가며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서 프리셉터 선생님께 가장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셨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2)

한 달에 한 번있는 병동 회식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 근무자 외에 한명도 빠지지 않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병동마다 분위기를 살리는 좋은 모임인 것 같고, 하나씩 좋은 기억들이 쌓여 가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근무 후 선생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같이 차를 사시고,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병동의 한 멤버로 차츰 흡수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여자 5)

4) 주제모음 4.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뿌듯함

신규간호사들은 혈관주사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실수도 덜하며 환자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업무에 적응해 간다고 표현하였다.

이젠 일하는 동안 만든 수첩을 보면서 항암 순서도 짜고, 검사도 준비하고...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었다면 더 빨리 익숙해 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여자 3)

아직은 일이 익숙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 가는 것이 기쁩니다. 처음보다는 확실히 아는 게 많아 졌고 실수도 덜 하고... 환자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사도 잘 못 놓아서 환자들이 짜증냈는데 이제는 혈관 잘 나오는 사람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참여자 5)

논 의

본 연구는 암 병동 신규간호사의 적응 경험을 Colaizzi²⁶⁾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규간호사들이 암 병동에 적응하면서 겪는 경험은 ‘어렵고 힘든 암병동의 업무수행’, ‘원만한 관계형성의 어려움’,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노력함’, ‘간호직에 대한 만족감과 보람을 느낌’, ‘간호사로 적응되어감’의 5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1. 범주 1. 어렵고 힘든 암병동의 업무수행

신규간호사들은 처음 접하는 암 환자와 관련된 업무에서 환자들

의 요구가 많고, 임종 환자가 많아 업무과중을 느끼며, DNR결정을 바라고 있었다. 이는 Lee와 Tae²¹⁾의 연구에서도 종양병동 간호사들이 돌보는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며,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거듭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면서 피곤이 쌓여가게 되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신규간호사들은 근무균일 업무, 항암요법 등 특수한 업무, 중환자 간호, 인수인계 등의 상황을 어려워하며, 학교와 임상 차이를 느끼면서 업무능력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근무여건에 따른 피로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병원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 등²³⁾의 연구에서도 신규간호사들은 근무 병동의 임상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이나 검사 등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과, 이론과 실무사이의 원칙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업무능력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자괴감까지 느끼는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대학에서는 임상 술기술의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실습교육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대학과 임상현장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암 병동의 업무 특성과 관련된 실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간호부서 차원에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업무량의 조절과 간호사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범주 2. 원만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선배간호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화가 무서워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고까지 표현하였다. 의사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보고상황에서 신규간호사를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말투와 표정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업무처리 시 타 직종 간의 관계나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Park와 Chun²⁸⁾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신규간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했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운 환경의 직장 동료들과 처음 관계를 맺는 것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여 신규간호사는 병동의 특성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규간호사의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에서 구체적인 대인관계 사례를 이용한 실제 적용 가능한 훈련을 강화하고, 간호사 스스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동료들이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이도록 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범주 3.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노력함

신규간호사들은 임상실무자가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며 호스피스 등 암 환자와 관련된 교육이나 CPR과 같은 응급상황대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선배간호사들이 필요한 지식이나 꼭 공부할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CPR 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간호사의 행동요령이나 매뉴얼과 실무에 필요한 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Hwang 등²³⁾의 대학병원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실무 현장에 필요한 간호지식의 고양을 위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간호사를 위해 현장실무에 적합한 교육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규간호사들은 끊임없이 이직을 고민하는 힘든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많은 일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습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uh와 Lee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역할모델이나 적절한 보상으로 인한 동기유발, 칭찬과 인정을 통한 성취감 향상 등 신규간호사의 노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긍정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범주 4. 간호직에 대한 만족감과 보람을 느낌

신규간호사들은 간호사가 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설렘이었으며, 또한 기대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간호직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고, 환자, 보호자와 동료간호사에게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oon²⁹⁾의 간호사라는 직업이 참 매력있으며, 환자들이 나서서 퇴원하게 되면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신규간호사의 임상적 경험과 유사하다. 이는 암 병동 신규 간호사들 또한 일반 병동의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힘든 업무 상황 속에서도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위해 직업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범주 5. 간호사로서 적응되어감

신규간호사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병원동기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위크숍 등을 통해 힘이 되는 기억이 생기고, 병동을 친근하게 느끼면서 적응되어 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고, 적응되어가는 자신이 병동 멤버의 한 명으로 차츰 흡수되어 가는 것 같고, 한 식구로써 섞여 있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며, 혈관주사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실수도 덜하며, 환자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업무 중에 만든 수첩을 보면서 항암 순서도 짜고, 검사 준비도 하고 있어 좀 더 나아진 것 같음을 느끼고 있었다. Bae³⁰⁾의 연구에서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및 동료와 직장 상사의 지원이 간호사의 조직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능력과 유능한 상급자를 모델링하면서 바람직한 간호사 상을 그려갈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과 동료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가 처음으로 암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그들의 살아있는 경험 그대로를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신규간호사의 긍정적인 역할 적응을 돕고 인적 자원 관리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이를 위하여 암 병동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1년 이하인 간호사 9명을 대상으로 암 병동 적응 과정 동안의 경험을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Colaizzi²⁶⁾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연 결과 신규간호사의 암 병동 적응경험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67개의 의미가 구성되었고 18개의 주제모음 및 5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신규간호사는 간호요구도가 많고, 특수한 업무가 많은 '어렵고 힘든 암병동의 업무수행'을 하며 '원만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였으며 동료와 환자, 보호자의 칭찬으로 '간호직에 만족감과 보람'을 느껴가며 점차 '간호사로 적응되어감'의 과정을 경험 하였다. 이에 병동의 선배간호사와 간호행정자는 암 병동 신규 간호사들이 실무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용이하게 활용가능한 실무자료의 개발은 물론 신규간호사들에 대한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암 병동 신규간호사의 효과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암 병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교육과,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자료, 대인관계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적응증진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양한 근무환경의 신규간호사 적응경험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oon IO, Lee MH. The Difference in Medical and nursing service sat-

- isfac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s. *J Korean Acad Nurs Adm.* 2002;8(1):151-67.
2. Hah NS, Choi J(2002). Nursing leadership style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 *J Korean Acad Nurs.* 2002;32(6):812-22.
3. Lee MS, Hahn SW. Original Articles : Effect of simulation-based practice on clinical performance and problem solving process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1;17(2):226-34.
4. Suh YO, Lee KW. Lived experiences of new graduate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3;19(2):227-38.
5. Yoon SH, Kim BS. New graduate nurses' stress, stress coping, adaptation to work, and job satisfaction: change comparison by personality. *J Korean Acad Nurs Adm.* 2006;12(3):491-500.
6. Hospital Nurses Association.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ing. <http://www.khna.or.kr>. Accessed February 13, 2014.
7. Jones CB, Gates M. The costs and benefits of nurse turnover: a business case for nurses retention. *Online J Issues Nurs.* 2007;12(3):5.
8. Aiken LH, Clarke SP, Sloane DM, Sochalski J, Silber JH. Hospital nurse staffing and patient mortality, nurse burnout, and job dissatisfaction. *JAMA.* 2002;288(16):1987-93.
9. Cimotti JP, Aiken LH, Sloane DM, Wu ES. Nursing staffing, burnout, and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 *Am J Infect Control.* 2012;40:486-90.
10. Elaine SS, Martha KE, Melvin SS. New graduate nurse transitioning: necessary or nice? *Appl Nurs Res.* 2008;21:75-83.
11. Min S, Kim HS, Ha YJ, Kim EA, Kim HY, Kim HJ, et al. The controlling effect of the self-efficacy in the job stress of hospital nurse on job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1;24(1):1-21.
12. Yeh MC, Yu S. Job stress and intention to quit in newly graduated nurses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work in Taiwan. *J Clin Nurs.* 2009;18:3450-60.
13. Seo YS, Kim YC.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involvement of nurses. *Korean Bus Educ Rev.* 2007;21:151-72.
14. Beecroft PC, Dorey F, Wenten M. Turnover intention in new graduate nurses: a multivariate analysis. *J Adv Nurs.* 2008;62(1):41-52.
15. Kim MR. Influential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the affect of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commitment to turnover intention. *J Korean Acad Nurs Adm.* 2007;13(3): 335-44.
16. Yoon GS, Kim SY. Influences of job stress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0;16(4):507-16.
17. Halfer D, Graf E, Sullivan C. The organizational impact of a new graduate pediatric nurse mentoring program. *Nurs Econ.* 2008;26(4):243-9.
18. Yun HM, Kim JS.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Global Health & Nursing.* 2012;2(2):52-61.
19. Scott ES, Engelke KM, Swanson M. New graduate nurse transitioning: necessary or nice? *Appl Nurs Res.* 2008;21(2):75-83.
20. Moon SH.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nurses in cancer wards and these in general wards [dissertation]. Seoul: Chung-Ang Univ; 2010.
21. Lee SY, Tae YS. The lived experience of the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oncology wards. *Asian Oncol Nurs.* 2012;12(1):100-9.
22. Ji EO. A study on field adaptation of new nurses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 2009.
23. Hwang SY, Lee EJ, Na DM, Lee GS, Sun GS, Lee CS. The clinical experiences of newly-qualified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02;8(2):

- 261-71.
24. Park HS, Kim KN, Kang EH, Park SM. Lived adaptation experiences of new ICU nurses who are working in a newly established university hospital. *J Korean Fund Nurs.* 2011;18(2):226-36.
25. Kim MY, Won JS. Adaptation to clinical experience by older graduate nurses who entered nursing after graduation in another field. *J Korean Fund Nurs.* 2007;14(3):361-70.
26. Colaizzi FU.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Valle RS, King M,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48-71.
27. Guba E, Lincoln Y.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1989.
28. Park JH, Chun IS. The lived experience of newly employed nurses: phenomenological study. *Qual Res.* 2008;9(2):99-110.
29. Yoon SH. A study on new graduate nurses'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J Korean Acad Nurs Adm.* 2002;8(1):55-72.
30. Bae S.H.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international nurses in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011;59:81-7.